

광주·전남 유통가 “유커 특수’ 기대 안합니다”

관광지·쇼핑·숙박시설 등 인프라 부족...방문객 적고 매출도 미미 광주신세계·롯데백화점 등 행사 마련 안해 “관광 대책 서둘러야”

중국인 6년 만에 한국의 단체관광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큰 손’이라 불리는 유커(중국인 관광객) 모시기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광주·전남은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부족한 숙박시설과 유커들을 유혹할 만한 관광지 및 쇼핑시설의 부재로 ‘유커 특수’를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광주·전남이 유커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숙박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중국인을 겨냥한 종합적인 관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광주·전남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2016년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통역 인력을 준비하고 각종 사은 혜택을 마련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기존 제공하고 있는 환전서비스 이외 특별한 기획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광주신세계 역시 특별한 기획 및 행사 등을 마련하지 않는 등 전국이 유커 맞기로 들뜬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처럼 지역 유통업계가 유커 특수를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중국인 관광객이 지역 서비스 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극히 적기 때문이다.

앞서 사드 사태가 벌어지기 전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유입이 많았던 지난 2016년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중국 관광객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7%에 불과했다.

광주신세계도 마찬가지다. 2016년 중국인 관광객이 광주신세계에서 지출한 금액은 총 5억원으로, 당시 광주신세계 연간 총 매출이 6000억원 규모였던 점을 감안하면 0.08% 수준이었다. 지역 유통업계가 유커 특수를 기대하지 않는 이유다.

2015년 사례를 봐도 당시 중국 춘절 연휴(2월18~24일) 기간 광주·전남에 온 2000여명의 중화권 관광객 중 광주지역 백화점 2곳을 찾아 쇼핑한 유커는 500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추산됐다.

대구가 비슷한 조건에서 4000여명의 중화권 관

객을 맞아, 지역 백화점과 면세점 등이 유커의 ‘빚살이 쇼핑’ 덕에 2배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광주 한 백화점 관계자는 “타 지역은 유커들이 명품이나 가전 등 단가가 높은 품목의 구매가 집중됐지만, 광주에서는 화장품, 핸드백, 영캐주얼 등 품목의 구매만 이뤄졌었다”며 “1인당 매출이 10만원도 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여행사에 리베이트를 지불해야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올해는 여행사와 접촉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이 허용된다고 하지만, 중국에서 무안국제공항으로 닿는 직항편이 급격히 축소된 것도 지역 경제계가 유커 방면에 기

대를 걸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2016년 기준 중국에서 무안국제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편은 7개였으나, 사드 사태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현재 장가계를 오가는 단 1개 노선만 운영되고 있다.

항공편이 확대되고 방문객이 증가하더라도 부족한 인프라는 여전히 문제다. 과거에도 광주·전남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나 부산 등을 가기 위해 거쳐 가는 곳으로만 여겨지고 있어왔다.

광주 경제계 관계자는 “중화권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특급호텔과 대규모 판매시설, 시내면세점 등 관광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광주·전남은 유커 특수를 누리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 수출, 17개 지자체 중 ‘최대폭 감소’

7월 28억3천만달러로 전년비 37.2% ↓ ...광주 16억6천만달러 -4.5%

전남지역 수출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는 등 부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발표에 따르면 7월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 대비 28.1% 감소한 44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크게 줄면서 수입은 전년 대비 40.6% 줄어든 35억2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9억7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전남의 수출은 28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무

려 37.2% 급감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큰 감소율 기록하며 전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력 품목인 석유제품의 경우 일부 지역 제트유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수출단가 하락, 수요 부진에 따른 물량 감소 등 영향으로 26.0% 감소했다. 이를 비수기 진입과 수요 정체로 인한 부진이 이어진 데다, 주요 철강재 수출 단가 하락에 가격 약세가 겹쳐 철강판 수출은 74.4%나 하락했다.

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철강판, 동광 등 중간재

가 수출품목인 전남은 전 세계적인 중간재 수입 수요 감소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무역협회의 분석이다.

광주의 수출은 16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5% 줄었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수출은 3.3%로 소폭 증가했고, 냉장고는 62.2%나 급증했다. 최근 부진했던 냉장고 수출이 지난달 1.5배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반도체는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데 경기 불황에 따른 IT 수요 및 주문량 감소, 파운드리가동을 하려 등으로 전년 대비 10.2% 하락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국세청,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17일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

이번 회의에서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방향과 관서별 적극행정, 소통 활성화 우수사례 등을 공유해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회의를 주재한 양동구 청장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라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 집행을 당부했다.

특히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인, 영세사업자 등에게 환급금 조기집행, 납세유예 등 적극·선제적인 세정지원과 저소득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업무를 철저히 집행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양동구 청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간편 조사 확대 등 세무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불공정,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고액·상습 체납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정수율을 강화해 일 잘하고 신뢰받는 광주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다문화가정 아동 대상 ‘多多캠프’ 진행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호남지역 다문화가정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다다캠프(다채로운 다문화캠프)’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이번 캠프는 JB금융그룹의 하반기 첫 핵심 사회공헌사업으로, 여름방학을 맞이한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금융교육과 영어마을 체험, 국립광주과학관 견학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캠프에는 JB금융그룹 임직원으로 구성된 ‘씨앗봉사단’과 관계자 20여명이 힘을 보탰으며, 특히 ‘다문화 특강’에는 최근 한국으로 귀화한 가수 ‘강남’이 ‘문화적 차이 극복 방법 및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주제로 강연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정효준(광주 하나중앙초 6학년)군은 “금융, 영어, 과학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캠프를 만들어 주어 감사하다”며 “친구들과 함께 오고 싶다”고 말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우리 호남지역은 타지역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부방 개선 및 지원, 다문화 청소년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지역 소외계층에게 필요할 때 적시 지원을 하고 기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신보, 올해 소상공인 5800억 보증 지원

지난해 대비 340억 증액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올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총 5800억원을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신보는 지난 16일 기준, 앞서 2300억원을 보증 지원한데 이어 신규보증으로 광주시 소상공인 특별보증 및 청년창업 특별보증 1772억원, 5개 자치구 특별보증 114억원, 은행 협약자금 및 재단중앙회 특별보증 600억원 등 보증건수 총 1만 건에 2500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작년 동 기간 대비 340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전년보다 약 3개월 가량 앞당겨 달성한

수치다.

신규보증 공급 금액 중 70%인 1760억원은 광주에서 이자(3~4%) 지원해, 총 20억원을 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했다.

김귀남 광주신보 이사장은 “재단 모든 임·직원이 광주시 소상공인들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3년 남은 기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들을 위해 신속한 보증공급을 이어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롤러코스터’ 초전도체 테마주 다시 급락

국제 학술지 “LK-99” 초전도체 아니다” 보도

전날까지 상승가 행진을 이어가던 초전도체 테마주가 17일 일제히 하락가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가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보도하면서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초전도체 테마주라 불리는 서남은 전 거래일 대비 29.99% 하락하면서 가격 하락 제한폭(-30%)까지 추락, 733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밖에 LS전선아시아도 -29.98% 급락해 1만 2030원에 장을 마쳤고, 국립신동도 29.87% 하락하면서 3920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등 하락가를 피하지 못했다.

전날 상승가를 찾던 모비스(-21.50%)와 덕성우(-21.31%) 등도 줄줄이 급락세를 보였다. 대창(-25.62%), 고려제강(-22.22%) 등 전날까지 강세를 보였던 초전도체 관련 테마주들의 약세가 이어졌다.

최근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연구기관이나 연구진의 발표 하나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등 혼조세를 보이는 추세다. 이날 역시 네이처가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보도한 것이 하락세의 원인으로 꼽힌다.

네이처는 16일(현지시간) 기사를 통해 “과학계가 LK-99의 금증을 푼 것 같다”며 “황후구

리가 초전도체가 나타내는 특성과 유사한 전기 저항의 급격한 감소와 자석 위에서의 부분 부상이 나타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구진이 네이처의 입장 요구에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미국 메릴랜드대학 응집물질 이론센터가 전날 ‘LK-99’는 상온과 저온에서 초전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계이름이 끝났다고 믿는다.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일부 초전도체 테마주는 연일 하락했다.

이후 지난 10일 핀테크 스타트업 보나사피엔스의 김인기 대표가 “LK-99는 상온 초전도체도 맞고, 새로운 강자성체도 맞다”라며 “원저자들은 원래 생각보다 더 대단한 걸 발견했다. 축하드린다”라는 게시물을 올리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2거래일 연속 급등하는 등 날뛰기 장이 계속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中 회사채 디폴트 올초 이후 최악...주택시장 침체도 심각

공식 자료보다 훨씬 더 심각

비구이위안 ‘매수’ 모두 잃어
모건스탠리, 성장 전망 하향

중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친 전례 없는 위기가 심화하면서 중국 내 회사채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올해 초 이후 최고 수준이며 이런 움직임이 채권시장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중국 주택시장의 침체는 공식적인 자료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채권 발행 업체들은 지난 6월과 7월에 총 75억 위안(1조 4000억원)의 지분을 이행하지 못했는데, 두 달 연

속으로는 지난해 12월과 1월 이후 최악이다.

현재 많은 부동산 업체가 신규 주택 판매가 감소하고 중국의 경제 위기가 확대되면서 채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주목을 받는 채권으로는 국영 건설업체 원양집단(시노오션)이 발행한 지난 2일 만기의 20억 위안(3700억원) 규모를 포함하고 있다.

원양집단은 제때 상환을 요구하면 디폴트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해 30일간의 채권 상환을 연장받았다.

이번 디폴트 위기 사태를 촉발한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园-컨트리타운)은 처음으로 만기 연장을 모색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비구이위안은 지난 7일 액면가 10억 달러(약 1조3300억원) 회사채 2종의 이자 2250만 달러(약 300억원)를 내지 못한 상태로, 30일간의 유예기간에도 채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애널리스트인 크리스티는 비구이위안의 디폴트는 2021년 말 도산 위기에 처했던恒大(에버그란테)의 붕괴보다 중국 주택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중국의 공식 통계상으로 주택시장은 더딘 경제 성장과 개발업체들의 기록적인 디폴트에도 놀랄 정도로 회복력이 있었다. 신규 주택 가격은 2021년 8월 최고치에서 단지 2.4% 하락했고, 기존 주택은 6% 떨어졌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19.85(-5.79)
↑ 코스닥	886.04(+7.75)
↑ 금리(국고채 3년)	3.788(+0.076)
↑ 환율(USD)	1342.00(+5.10)